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

(고후4:16~18)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 지구 위에 태어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생동안 두 종류의 결혼과 두 종류의 이혼이 아주 심각하게 해당됩니다.
두 종류의 결혼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결혼과 하지 말아야 했던 결혼, 두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혼과 꼭 해야만 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결혼을 한 상태면 이혼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꼭 하지 말았어야 될 결혼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과 비슷한 말로 안사람과 바깥사람을 생각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바깥양반이라고 그러지요.
성숙한 남녀의 결혼에서는 안사람과 바깥사람의 연합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가옥의 구조가 아내는 낮 동안 안채에서 생활하고, 남편은 바깥의 사랑채에서 생활하고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안사람과 바깥사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안채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과 바깥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연합,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결혼이고, 이 경우는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자체가 원래 식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식었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에서 시원한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시원한 사랑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뜨거운 사랑의 때를 생각하면서 자꾸 식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원래 뜨거운 사랑에서 시원한 사랑으로 변하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원한 사랑은 유지가 되느냐?
맨 처음에는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시원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시원한 사랑으로 유지되지 못한 채 이혼으로 끝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결합이 있는데, 이것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결합입니다.
결혼은 사도바울의 말씀대로 은사에 따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결합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에요.
어떤 결합입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마음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 마음과 육체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 결합만큼은 안사람과 바깥양반의 결합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합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결합이라는 얘기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유전되고 있는 결합인데, 어쨌든 그렇게 유전되어진 속사람과 겉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진 결합 안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전적인 속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은 자연스럽게 연합돼 있는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결합에서부터 모든 죄악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안사람과 바깥양반의 결합에서 자녀들이 나오는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의 결합에서 모든 죄악이 자녀로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이 없으면 큰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몸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이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당연히 의문이 되지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결합해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병존해야 될 존재입니다.
'나'라는 인격이 사건인 상태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요, 그렇죠?
현재 사건이라는 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발생하는 '나'라는 인격적 사건 안에서 몸과 마음은 서로 병존해야 되는 것이지, 묶이거나 연합하거나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예속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안에 나타나는 3층 세계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고 계시고,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 공중이라는 층에 마음이 속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 육체가 속해있는 땅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고 하는 인격의 사건 속에서는 하늘과 공중과 이 땅의 삼층이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병존해야 되는데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음으로써 모든 죄악이 거기서 다 나타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육체를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나 잘못된 이원론자들처럼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혼자가 있는 아가씨가 회사에서 김 대리와 이 대리를 만날 때, 그들이 경시해도 될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과 남녀로써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선택의 문제에요.
그리고 육체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선택해서 육체와 결합하는 것 대신에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결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제 하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어떨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안사람과 바깥사람이 결혼식을 할 때 평생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함께한다고 서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길을 가게 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게 돼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길을 갑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 선민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가는 길이 속사람이 묶인 채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이 날마다 낡아지고 있는 겉사람에 묶인 채로 그 겉사람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인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못생겼으면 내가 못생긴 줄로 압니다.
겉사람이 나이가 60이면 내 나이가 60인줄 알아요.
내 나이는 60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나이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 겉사람이 60이라고 60인줄 알고, 겉사람이 20이라고 20인줄 알고 있는 거예요.
20살이고 70살이고 80살이고 원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따로 가야 되는데 같이 묶인 채로 가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약간의 장애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속사람인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 묶여있는 대상을 따라가게 돼있다는 거예요.
즉, 겉사람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 하여간 띠동갑부터 20살까지 차이가 나는 부부들의 경우에, 남자는 젊은 아내 따라서 젊어진다고 얘기하고, 젊은 아내는 남편 따라서 좀 더 늙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흔이 넘어서 늦둥이를 낳게 되면 부부가 젊어진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관계하는 대상을 따라서 내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대체 누구를 관계하기에 날마다 새로워지느냐는 겁니다.
내가 아내하고만 관계하고 있어요, 내 아내의 겉사람이 늙어갑니다, 그러면 내 아내의 늙어가는 모습만 보면서 나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아,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지나다보니 아내 머리에 흰 머리가 생기고 기미가 생기니까 나도 그렇게 늙었구나!' 거울을 보는 거예요, 겉사람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거울을.
그런데 이렇게 관계하지 않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혼을 해버립니다, 묶여있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므로.
겉사람과 겉사람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속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그 관계를 끊을 때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결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친해진다는 것은 그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부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맨얼굴 못 봤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맨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몰랐던 걸 알아가는 거예요,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면 허물이 또 덮여지기도 하지요.
여기서 또 새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이신 그분의 인격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는 우리의 인격이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나라에 가더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알아 가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경이로워요, 하나님을 보면 낯선 분 같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관계한 대상에 따라서 마음의 속성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관계할 때 가능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17절의 말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상한 것은 사도바울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환란이 주어질 때 왜 그 환란과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제나 환란이 주어지면 환란을 수용하려는 태도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환란이 주어지면 그 환란을 어떡하든지 극복해서 이 세상에 겉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을 개선시키고 호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란이 주어질 때 그 환란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리 안 좋고 힘들어도 경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그 지극히 영원한 것의 좋음과 비교해보면 환

란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받아버리고 맙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말이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데, 그 헛되고 헛되다는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 좋다, 육체가 살고 있는 동안의 일이야,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다 이 세상에 겉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야,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뭐? 일시적이라고 하면 좀 추구하면 안 되나?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라도 많이 갖고 즐기고 좋아하면 안 되나? 그게 왜 나쁘다는 거냐?' 마음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맨날 헛되다 헛되다고 세상 걸 버리라고 얘기하고, 나는 맨날 끄덕끄덕 아멘 아멘하면서 그걸 찾아가고 있고, 목사님들조차도 강단에서는 헛되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되다고 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절대 안돼요, 여러분!
머리로는 깨닫지만, 이 세상에서 환란을 받지만 그 환란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대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대한 맛을 알아야 가능한 얘깁니다.
남녀 간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요, 그때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면 뜨거운 사랑이었던 게 시원한 사랑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그렇게 보기가 싫은지 몰라요.
전부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도바울이 영원한 게 좋다, 중하다, 그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이 세상에서 겉사람에게 환란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속사람이 영원한 것을 가지면 좋다고 하지만, 영원한 것을 갖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겉사람에게 내 속사람이 묶여있는 채로 있으면, 이 겉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고 그것들을 잃는 게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영원한 것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의 맛을 알게 되면 내게서 돈이 없어지는 환란, 건강이 좀 상하는 환란, 심지어는 순교 당하게 되는 그런 환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의 맛을 알아야.
내 마음이 영원한 것과 결합할 때라야 겉사람에게 주어지는 환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 무의미성과 일시성과 허무성이 진짜로 마음에 설득이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연관되어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건 마음에 설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응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응시한다는 얘기는 소망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응시하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속사람인 마음이 보는 것은 겉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속사람은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이혼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 속사람이 영원한 것의 맛을 느끼게 되면서 겉사람에게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가치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거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걷게 되는데, 이 보이는 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혼미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력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시력을 빼앗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비쳐지고 있는 하늘의 빛을 못 보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마음이 하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이혼을 안 했기 때문인데, 원리가 이렇습니다.
태양빛이 비쳐서 우리 겉사람의 시각으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는 땅 위에 있는 것만 보이지, 하늘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태양이 져버려서 이 땅에 있는 내 주위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하늘의 별은 더 영롱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과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겉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겉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일시적이다, 허무하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음은 자꾸 겉사람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돈에 빛이 들어오고, 건강에 빛이 들어오고, 일류대학에 빛이 들어오고, 성공과 형통에 빛이 들어오고, 큰 예배당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고,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빛이 들어오니까 자꾸 마음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이혼을 해야 되요.
이혼을 해서 겉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빛이 완전히 차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하늘의 빛들이 비쳐지기 시작합니다, 영원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속사람과 겉사람이 연합되어 있고 묶여있을 때에 돈을 추구한 것처럼, 명예를 추구한 것처럼, 성공을 추구한 것처럼, 그런 열정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혼하는 바람에 드디어 겉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차단되면서 내 속사람에게 하늘의 빛이 비치니까 그 하늘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되어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하늘을 향해 뜨거워지게 된다 이겁니다.
하늘을 향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사람에 일어나는 환란이 경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겉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낙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날마다 이혼시키는 십자가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겉사람의 세상에서 겉사람을 움직이므로 겉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과 형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혼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속사람은 영원을 갖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낡아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